우리나라 原電事業에 대한 國民的 合意

盧 潤 來
〈韓國電力公社〉

1. 머 리 말

돌이켜 보면 지난 1년은 특히 原電分野에 있어서 우리 公社의 受難期였던 것 같다. '79年度 美國 TMI 核事故에 따른 安全措置事項들이 우리나라에서는 大部分 補完되고 있지 않다는 針小棒大式 記事와 함께 單純한 機器故障으로 因한 發電停止事例가 마치 重大한 실수로 因한 事故인양 報道됨으로써 年初부터 우리의 神經을 자극하더니, 國政監査期間中에는 이른바 5共非理의 하나로 지목된 原電 11, 12號機의 設計概念問題가 급기야 全般的인 原電安全問題로 비약되어 反核人士들의 공격목표가 되었는가 하면, 年末에는 하찮은 우리의 실수로 極微量의 汚染 장갑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古里原電 부근의 沈澱池에 埋立된 것이 밝혀져 住民들의 被害意識과 放射性廢棄物管理에 對한 不信 내지 安全上의 不安感이 高潮되어 급기야 古里는 물론 月城, 靈光 등 3個地域 原電 隣近住民이 集團으로 上京, 本社 앞에서 示威籠城을 하는 등 '88년은 참으로 힘들고 고달픈 한 해였다.

이같은 현상은 最近의 民主化 過程에서 個個人의 慾求가 多樣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동안 比較的 報道統制되었던 原電事業에 對하여 一般人들의 觀心이 높아지고 있다는 事實에서 그 原因을 찾아볼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의 狀況으로 볼때 이같은 原電事業에 對한 否定的 視覺의 표출 또는 行動은 反核團體는 물론 앞으로는 運動圈 學生들의 투쟁목표로 設定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더 나아가서는 在野와 연계되어 자칫하면 政治社會문제로 비화될 우려마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對한 적절한 對策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노릇이다. 에너지資源이 없는 나라로서 결코 남보다 뒤떨어져서는 안된다는 國民的 自覺이 있었기에 우리는 '60年代부터 열심히 일해 오늘의 中進國 선두에 서게 되었거니와 이를 可能케 한 것은 무엇보다 電力에너지의 숨은 功勞를 認定치 않을 수 없을진데, 그리고 오늘날 電力生産量의 半 以上이 原子力에 의한 것임을 감안할때 原電에 對한 國民的 理解 내지는 合意(PA)가 무엇보다 要請된다고 하겠다.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 自省해 보면, 그동안 우리는 原電에 對한 PA는 고사하고 弘報活動(PR) 조차 옳게 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편파

적인 PR만을 爲主로 해 오지는 않았는지? 폭넓은 原電 PA를 爲해 적절한 對應策은 무엇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推進하려면 PR方法은 어떻게 改善되어야 하는지 등 생각하면서 이제 나의 所見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2. 外國의 反核活動 및 對應策

참고로 外國에는 어떤 種類의 反核運動이 活動中에 있으며, 이에 對한 各國의 政府 또는 原子力産業界의 對應策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자.

代表的인 反核團體로서 네덜란드의 암스텔담에 本部를 두고 있는 綠色平和團(Green Peace)을 들 수 있다. 이 團體는 약 10年前에 組織된 國際的 自然保護團體인데, 思想은 急進的이고 그 行動이 가장 격렬한 行動部隊로서 '86년에 일어난 체르노빌核事故 以後 그 活動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 歐洲는 물론 美國, 日本, 카나다 등의 反核團體와 연계되어 있다.

또 다른 反核團體로 西獨의 綠色黨이 있다. 처음에는 反核을 포함한 환경보호를 目的으로 市民運動을 推進해 왔으나 最近에는 정부시책에 對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議會에도 상당수 進出하고 있는데, 産業化에 따른 公害問題와 이로 因한 人間性의 상실고발 및 原電의 追加建設 反對 등 活動을 넓히고 있다. 이들 反核團體들은 우리나라의 反核團體와도 情報交換, 交換訪問 등의 형태를 通해 相互 연계되어 있는 實情이다. 한편 이같은 反核團體들의 움직임에 對한 對應策으로 各國은 저마다의 特性을 살려 다음과 같은 姿勢를 취하고 있다.

첫째, 資料의 公開를 原則으로 하되 서로 다른 內容의 情報는 反核團體의 공격목표가 되므로 정확을 기하며, 너무 많은 細部的 정보는 오히려 더 많은 論爭거리가 되기 때문에 基本的이고 原則論的인 것 만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公開한다.

둘째, 民主的인 公開社會에 있어서는 反對理論이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核心的인 反原電人士를 상대로 說得作業을 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며 다만 反核活動이 國民 全體에 확산되지 않도록 一般大衆에 對한 弘報活動이 매우 重要하다. 또한 原電의 贊反討論에서는 항상 反對論이 사용하는 자극적인 用語가 一般的으로 더 넓은 共感帶를 형성케 된다는 點에 유의한다.

세째, 原電事業은 國家經濟를 위하고 國民生活水準 向上에 一翼을 담당하고 있으며 事業者는 종업원의 복지와 地域社會의 開發에도 힘쓰고 있음을 實際로 보여주는 등 誠實性 있게 對民弘報에 임하여야 되며, 政府는 國家次元에서 對策을 세우고 많은 弘報費를 投入하되 一般大衆의 거부감이 없도록 뒤에서 支援한다.

네째, 모든 人的 資源을 最大로 活用한다. 一般的으로 文人, 藝術人 등은 性格上 反核理念에 호르기 쉬우므로 이들을 發電所에 見學시키고 意見交換을 함으로써 매우 效果的인 結果를 얻을 수 있으며, 教師와 學生을 利用한 PA活動도 널리 권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從業員의 家族과 親知를 對象으로 한 弘報要員化 教育이 필수적이다.

3. 原子力 PA를 爲한 對應策

우리나라 原電 PA를 위한 對應方案으로서 누가(原電事業者, 原産, 政府 등) 中心이 되어야 對民 弘報役割을 效果的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方法(신문·잡지·TV 등 言論媒體의 利用, 간담회·세미나 등을 이용한 對民弘報, 文藝人·記者 등 有力人士의 發電所見學 및 意見發表 등)을 使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지를 그동안 우리 公社를 포함한 事業者와 原産, 政府 등 各界의 專門家들이 모여 이같은 問題를 놓고 討論을 한 바 있다.

數次에 걸친 會議를 通해 어느 정도 改善된 方案이 나오긴 했으나, 筆者의 생각으로는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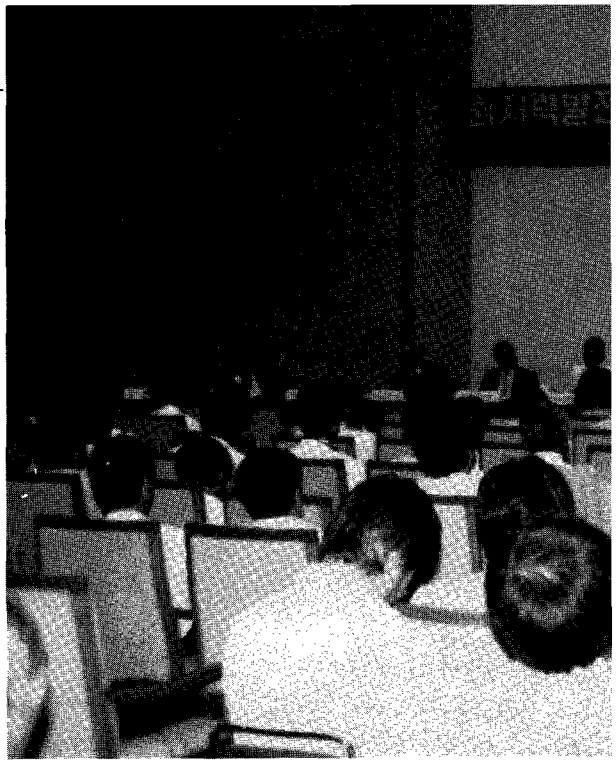
다 重要한 것은 各界名層으로 부터 폭 넓은 國民的 合意가 이루어지는 것이 要諦이므로 弘報의 對象을 選定하여 그 對象에 따른 적절한 對應策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에 따라 그 方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筆者는 우선 그 對象을 原電 周邊의 住民, 先導的 역할을 하는 反核人士(團體) 및 一般大衆 등 셋으로 大別하고, 性格上 이들은 각각 原電의 視覺이 相異하고 利害가 相反되므로 그에 相應하는 對策이 세워져야 폭 넓은 PA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 住民을 위한 對應策

原電 PA를 위한 가장 重要한 對象은 무엇보다 原電 周邊에 居住하고 있는 住民들의 立場을 充分히 파악하고 理解하는 일임은 再言을 要치 않는다. 그리고 이들로 부터의 폭 넓은 理解 내지 共感을 얻는다는 것이 電源 開發에 얼마나 重要한 要因인가는 自明한 일이다. 그런데 지난 12월 12일부터 3日間 韓電 本社 앞에서 示威와 농성을 벌인 原電住民들의 한결같은 소리는 原電은 매우 危險한 施設이므로 集團移住 및 이에 따른 生計對策을 要求한 것이다.

重要한 事實은 최근 國內의 政治社會 여건변화에 따른 國民意識에 對한 調査分析이 未備하다는 點이다. 住民들이 放射線 危險에 不安感을 갖고 集團移住를 強力히 要求한 것은 그들의 戰術에 不過할 뿐이고 根本的인 要望事項은 住民들의 生活水準 向上을 목표로 한 補償에 있다는 事實을 우리는 直視해야 된다. 우리 民族은 옛날부터 자기 마을, 자기 국가를 떠나 살 수 없는 民族性을 갖고 있다는 事實에 유념할 必要가 있다. 平生을 外地에서 獨立運動에 바쳐왔던 호랑이 같은 李承晩 大統領도 客地生活에 상당히 익숙하련만 生前에 亡命地 하와이에서 故國에 돌아가기를 얼마나 그리워 했던가는 널리 알려진 逸話이고, "망향의 동산"이 번창하는 까닭을 알면 우리 民族은 참으로 情에 약



하고 살던 땅에 애착심을 갖는 고유의 文化民族임에 틀림없다 하겠다.

그러니 住民들의 生活水準이 前(原電建設)보다 못할 이유가 없겠으나 建設期間中(고용확대, 잉여자재의 活用, 음식·숙박업의 번창, 地域社會의 開發 등) 누렸던 惠澤이라든지 公社職員 및 家族들의 生活水準 등을 比較할 때 相對的 궁핍을 느끼는 것이며(이는 原電 및 韓電本社 앞에서의 示威中 내걸었던 슬로건 "韓電은 天國, 原電 周邊地域은 지옥"에서 뚜렷함) 自己네 地域에서 事業을 해 富를 蓄積했으면 그 一部를 地域社會에 환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住民들의 볼멘소리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事實이다.

日本의 경우를 보면, 電源開發 促進을 위한 이른바 電源 3法에 따라 電力事業者는 每年 0.444円/kWh를 地域社會 開發을 爲해 投資하고 있는데 反하여, 韓電은 自體的으로 今年度에 0.02원/kWh를 地域協力費로 충당하고 있는 것인데 換率을 考慮한다면 그 差異는 무려 100倍가 넘는 것으로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다. 發電所 建設의 認可가 나오기 前에 周邊의 道路포장, 上下水道 施設은 물론이고 展示館을

세워 住民들의 理解를 求하고 室內體育館, 수영장,오락시설 등을 세워 住民들의 便宜施設에 노력하는 日本의 例를 우리는 그저 남의 이야기로 보고만 있어야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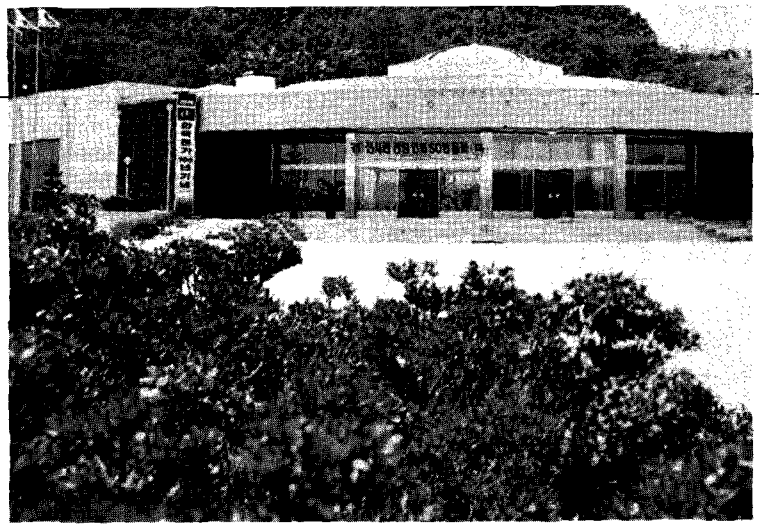
우리의 여건이 日本과 달라 어려움이 많은 것은 筆者도 認定한다. 그러나 最少恨 原電 부근에 輕工業用 家內工場을 세워준다면 住民들이 自治的으로 運營함으로써 그들 生活水準 向上에 노력할 것이며, 地域이 海岸이니 만큼 溫排水를 利用한 양어장施設을 해줌으로써 漁民들의 生計를 돕는다는 것은 政府의 눈치를 보지 않고라도 우리 스스로 支援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住民들의 電氣料金을 半減해 주고 中高等 學生에 對한 學資金 支援 등 可視的인 惠澤을 주지 않는限 先進國에 比해 낮은 教育水準과 生活여건에 놓인 우리 住民들로 부터 폭넓은 PA를 얻기는 거의 不可能할 것이다.

나. 反核人士를 위한 對應策

한마디로 急進的인 反核人士(團體)에 對해서는 Isolation戰法을 使用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反核(反原電) 運動은 그 急進的인 性向으로 미루어 運動圈 學生과 연계되어 보다 活潑해 질 것이 우려되느니 만큼 더욱 그렇다고 생각된다.

社會가 점차 民主化, 公開化 되어가는 過程이고 보면 누구나 한마디 비판하고 때로는 목소리를 높이고 싶어하는데 하물며 反核(特히 先導的 역할을 하는) 人士에 對한 說得이란 어려운 일이며, 노력한 만큼의 효과도 얻기 어렵다는 것이 先進國家의 共通된 見解이다. 實上 反核은 그들의 일임을 알아야 하며, 다만 一般大衆이 그릇된 偏見에 誤導되지 않도록 隔離에 힘써야 한다. 要는 그들의 反核움직임에 너무 과잉반응을 나타내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無視하는 便이 오히려 效果的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과의 접촉을 멀리하고 기피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資料의 公開와 技術的 說明은 해주되 事實 自體 만을 간략하고 正確하게 할 뿐 決코 그들을 說得하려 하지 않고, 그들이 使用하는 자극적 用語("죽음의 재", "殺人光線", "암의 공포" 등)로 하여금 많은 一般大衆이 물들지 않도록 隔離하라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 反核人士들의 背景을 살펴보면 外國과는 달리 自然科學을 工夫한 사람이 거의 없어 原電의 技術的 特性을 說明해 주어도 理解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엉뚱한 反應을 보이는 등 逆效果 만이 있었던 筆者의 경험에 비추어 볼때 資料의 公開 및 技術說明 등에는 要點만 간략하게 하는 것이 效果的이라는 것과 自然科學을 履修한 人士가 다수 反核團體에 加入치 않고 있다는 事實이 하나의 弱點임을 지적할 必要가 있다 하겠다. 즉, 自然科學의 背景을 갖고 있으며 原電의 技術的 特性을 어느 程度 理解한다면 비록 반핵쪽에 있더라도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있고 이해를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컨데 反核人士들과 原電에 대한 贊反討論을 벌인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銘心하고 다만 그들의 善導的 역할로 因하여 反核活動이 一般大衆에게 擴散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熱中해야 될 것이다.



▶울진원자력
발전소
전시관 전경

다. 一般大衆을 위한 對應策

一般大衆이라 해도 敎授, 文藝人, 醫師 등 이른바 敎育水準이 높은 知識人이 있는가 하면 比較的 敎育 및 生活水準이 낮은 職種(農民, 노동자 및 小規模의 商人)에 종사하는 사람, 우리나라의 將來를 떠맡을 學生, 家事에 充實한 家庭主婦 등 千差萬別이다. 따라서 이들로 부터 폭 넓은 原電事業의 支持를 얻으려면 이들 各界各層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作成하여 弘報活動을 해야만 效果的이라고 생각된다.

대체적으로 知識人, 특히 文藝人들은 反核쪽으로 기울기 쉬운 性品이 있으므로 原電施設의 見學과 訪問에 따른 意見交換 또는 訪問記 등은 매우 권장할만 하며, 學生·敎師에 對해서는 見學과 함께 學究心을 불태우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深度 깊은 討論을 갖게 하고 모범적인 事例에 대해서는 상금을 포상하는 方法도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나라 人口의 半이 女性이고 또한 現在 女權이 점차 伸張되어 가고 있는 事實에 착안해야 된다. 이를 위해 韓國電力公社의 主婦모니터制를 더욱 發展시켜 原電에 對한 弘報敎育을 履修케 하고 班常會, 主婦모임 등의 機會를 活用해 效果的인 結果를 얻도록 努力해야 될 것이다. 또한 全國의 소비자團體도 主로 女性中心의 活動이므로 이같은 主婦모니터制의 活用이야 말로 一石二鳥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醫師를 原電 PA 目的으로 活用할 수 있는 좋은 方案이다. 大都市에서는 性格上 어려운 點이 豫見되겠으나 中小都市와 農漁村에서는 좋은 效果가 期待될 수 있겠다. 特히, 農漁村에는 綜合病院이 없어 大部分의 住民이 保健所를 利用하고 있는 點을 착안하여 이들 公醫로 하여금 훌륭한 原電 弘報要員化를 自然스럽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같은 目的으로 全國의 保健所 의사들을 順番的으로 原電에 招待하여 見學과 함께 充分한 理解를 시킨 다음 地域內의 住民 진료시에 無理없이 世上 돌아가는 情談의 형식으로 原電의 必要性을 解說케 한다면 대단한 效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特히 地方에서는 의사의 身分이 住民 說得에 重要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實上 家庭醫制度가 發達된 西歐(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이들을 原電 弘報에 活用하고 있는 實情이다.

무엇보다 重要한 事實은 言論界의 役割이다. 신문, 잡지, TV 등 이른바 大衆媒體는 一時에 全體的으로 多數의 一般人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므로 原電 PA의 成敗는 言論界와의 相對的 函數關係를 갖는다 해도 過言이 아니다. 不幸히도 大衆媒體는 그 性格上 밝은 面보다는 어두운 面을, 肯定的이기 보다는 否定的 視覺을 擇하는 경향이 높으므로 言論界와의 關係에 있어서는 많은 硏究와 努力이 必要하게 된다. 따라서 政府나 原子力産業界도 有利하고 밝은 편파적 情報 만이 아니고 兩面을 同時에 公開토

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끝으로 眞理는 가까운 곳에 있음을 銘心해야 된다. 무엇보다 原電事業者 및 관련 기관의 직원과 그 家族에 대한 教育이 先行되어야 하며 이들을 弘報要員으로 活用해야 된다.

一般大衆에 대한 原電弘報를 보다 効果的으로 推進하기 위한 方法의 하나로서 大都市에 있어서는 交通이 便利한 곳에 原子力코너(展示館)를 設置하여 누구라도 쉽게 接近할 수 있게 하고, 全國에 걸친 官公署(韓國電力公社의 支社, 支店 등 포함)와 學校, 病院, 教會 등 公共建物에 弘報册子를 끊임없이 供給하는 등 一般大衆에 대한 弘報는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對象別로 PA 對應策을 살펴 보았지만 이런 事業을 함에 있어서는 莫大한 예산이 수반된다는 어려움이 있다. 앞서 日本의 例를 들었지만 先進國家에서 原電 PA를 위해서는 우리보다 數十倍 以上의 많은 돈을 아낌없이 投資하고 있다는 事實을 注視해야 되며 그렇지 않고는 効果的인 PA 活動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4. 効果的 弘報方法

앞서 原電 PA를 위한 對應策을 생각해 보았는데 이에는 두가지 要素, 즉 많은 投資와 効果的인 弘報方法이 先決임을 알게 되었다.

이제 筆者를 끝으로 効果的 弘報方法에 對해 몇가지 意見을 發表코자 한다.

첫째는 弘報를 담당하는 主管部署의 選定이다. 물론 政府, 原産, 原電事業者 및 그 關聯 기관들이 모두 弘報活動의 強化에 힘써야 되겠지만, 原電은 國家的 事業이므로 施行錯誤 없이 그 事業이 推進되려면 PA를 위한 弘報(PR)를 效果的으로 活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主導的 役割을 담당하는 어느 機關을 選定하여 차질 없이 進行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主管部署는 原電弘報計劃(Master Plan)을 세우고 原電事業者를 포함한 會員社間의 弘報業務를 조정, 통괄하고 傘下에 弘報業務를 直接 수행하는 機關(團體)을 거느리는 形態가 가장 合理的이 될 것이다. 一般大衆의 눈에는 原産 역시 事業者와 같은 組織으로 보일 것이므로 原産은 뒤에서 모든 弘報計劃을 立案하되 가칭 "韓國無公害에너지協會"(The Clean Energy Association of Korea)란 機關을 그 傘下에 두고 第一線에서 直接 一般人을 對象으로 弘報活動을 하는 것이 効果的일 것이다 日本의 例를 보더라도 "原子力文化振興財團"이란 機關을 두고 原電 弘報活動을 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政府는 強力한 行政力을 바탕으로 充分한 原電 弘報活動이 될 수 있도록 必要한 財源을 直接 또는 間接的으로 支援하되 결코 第一線에 나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이다.

둘째는 弘報資料의 問題이다. 지금까지 弘報는 原電의 長點, 必要性, 絶對的 安全性 등에만 置重해서 資料를 公開한 것이 事實이었다. 그러나 萬事가 그렇듯이 原電事業에도 밝은 面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面도 있고, 肯定的인 長點 말고도 否定的인 短點도 있기 마련이므로 앞으로는 이 모든 것을 比較檢討의 形式으로 資料를 作成하고 一般에게 公開함으로써 폭 넓은 共感帶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되며, 그런 過程을 거쳐 原電에 대한 一般人들의 贊反討論이 이루어지면 自然的으로 밝고 肯定的인 面이 더 두드러지게 되어 比較的 쉽게 原電 PA가 形成되리라 판단된다.

세째는 用語의 使用이다. 特히 原電의 技術用語는 原語의 直譯 보다는 그 뜻을 살려 번역하는데 힘써야 된다. 그런 意味에서 筆者는 例컨데 美國을 "아메리카 合衆國"(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라 번역한 日本人의 재치를 높이 평가하고 싶다. 아무리 번역해도 United States는 合州國이지 合衆國은 아니다. 그러니 美國을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合衆

國에서 느끼는 이미지란 地球의 이곳 저곳에서 몰려 온 多數 人種으로 이루어진 國家라는 事實을 쉽게 연상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훌륭한 번역이다. 이런 觀點에서 原電에서 널리 使用되고 있는 用語 가운데 一般人이 쉽게 理解할 수 있도록 고쳐야 할 事例를 몇가지 든다면 燃料集合體(Fuel Assembly)를 연료다발, 線形熱出力(Linear Heat Rate)을 燃料棒出力, 確率論的 危險評價(Probabilistic Risk Assessment)를 相對的 安全評價, 技術仕樣(Technical Specifications)을 技術明細로, 脆化遷移温度(Nil Ductility Transient Temperature)를 硬化移動温度 등으로 바꾸어 使用할 일이다.

네째로 單位의 使用이다. 특히 弘報用 資料에는 專門家 보다는 一般人에 익숙한 單位를 使用해야 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잘 알려진 事項과 比較함으로써 大衆의 理解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따라서 歐美에서 흔히 쓰는 피이트(尺), 파운드 單位 대신에 미터(M), 킬로그램(Kg)을, 温度單位로는 화씨(°F)보다는 섭씨(℃)를, 壓力單位로는 psi보다 氣壓을 使用하는 것이 좋겠다.

같은 MKS 單位에서도 보통 一般人은 1000倍 單位의 變動에는 쉽게 익숙해 있으나 百萬倍의 單位 增減에는 거부감을 갖게 된다. 즉, 發電所의 容量이나 電壓 單位에는 KW 또는 KV를 使用해야지 MW, MV로 表示하면 쉽게 理解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면, 原電의 容量이 100萬KW라 해야지 1000MW로 하면 좋지 않다는 것이다. 最近 電子工學의 發達로 發電所 制御系統이 디지탈化하면서 反應時間이 매우 짧아 micro(10^{-6})에서 nano(10^{-9})秒 單位로 옮겨지고 있는데 이것도 100萬分의 1초, 또는 數10億分의 1초 등으로 解說해 주는 것이 理解를 돕게 된다고 본다.

또한 原電 周邊에 사는 住民이 原電 때문에 追加로 받는 放射線量이 보통 年間 1~5밀리렘(mR)인데, 이렇게만 說明할 것이 아니고 人間은 누구나 地球上에 살면서 自然狀態로 存在하는 放射線을 받고 있고 그 量은 地域에 따라 多少 差異가 있으나 年間 100~150mR이고, 病院에서 1回의 ×線을 촬영할 경우 촬영 부위에 따라 30~100mR의 放射線을 받게 된다고 說明하면 住民이나 一般人들의 原電 PA에는 無理가 없다고 생각된다.

이 以外에도 改善해야 될 弘報事項이 많이 있을 수 있다. 原電 住民들의 깊은 觀心은 放射線에 대한 一種의 두려움이므로 周邊의 放射線 모니터設備를 住民이 直接 쉽게 읽을 수 있도록 改善하고 환경평가를 위한 試料채취를 住民과 함께 하는 등의 方法을 생각할 수 있고, 또한 弘報用 資料는 說明 中心의 읽는 册字에서 그림(만화) 中心의 보는 册字로 바꾸는 일들을 생각할 수 있겠다. 一般大衆이 原電에 對해 품고 있는 생각을 항상 正確히 파악할 수 있어야 적절한 對應策을 세울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信賴할 수 있는 여론조사와 그 分析 및 評價에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

5. 맺 음 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原電事業에 對한 國民的 合意(PA)를 위해 여러가지 對應策을 들고 이를 效果的으로 推進하기 위한 方法으로 弘報技術의 改善方向을 提示하였거니와 이에는 많은 投資와 꾸준한 弘報活動의 뒷받침이 必要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原電 PA는 成功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政府는 充分한 財源造成에, 原産은 綜合的이고 體系的인 弘報計劃을 수립하고 그 傘下에 弘報活動을 직접 수행할 機關을 둠과 동시에 會員社間의 弘報業務에 不協和音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 및 통제기능을 갖어야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原電 PA와 관련하여 今年은 그 成敗가 가늠되는 가장 重要한 한 해가 될 것이다.